

전북

‘전북 버스파업’ 돌파구 찾나

道, 교섭단 구성 중재 나설듯...협상 방향 촉각

전북지역 버스회사의 파업이 20일 13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주 시내버스는 전주시가, 시외버스는 전북도가 맡는 요구안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전북도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 버스를 상대로 한 교섭단이 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5일 파업후 첫 대화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측의 예상치 못한 시외버스가 거론되며 결국 의미없는 첫 만남이 되고 말았다.
당시 시와 사측은 “시외버스는 도

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 권한 밖이다”며 난색을 표명했고, 노조 측은 “일부만 교섭대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표단을 꾸려 재협상에 나서자”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시와 사측이 ‘노사간 대화의 장’ 마련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전북도의 협상방향이 이번 파업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현재 버스교통률은 전세버스 60대를 포함해 총 215대로 56%를 보이고 있다. 평상시 운행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미 ‘전주 시내버스 파업 해결촉구’란 카페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 음에 설치된데 이어 시청 홈페이지에

도 이와 관련된 각종 불만사항들이 가득 차 있다.
시만 김모씨는 “하루 4만5000원 아르바이트에 택시비가 1만원을 차지한다. 10시간 내내 서서 일한 것을 어떻게 보상받느냐”고 밝혔다. 운모씨 역시 “서로 한발씩 양보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 애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지역 7개 시·도 버스는 노조는 지난 8일 ▲통상임금 미지급 분 지급 ▲해고·징계 등의 탄압중단 및 정당한 대우보장 ▲과도한 근무시간 조정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짜릿한 얼음낚시, 추위 짝이야” 강태공들이 수일간 강추위로 얼음이 언 부안군과 정읍시의 경계를 흐르는 고부천에서 민물낚시를 하고 있다. 추위와 찬바람을 막기 위해 텐트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강천산 음용 온천수’ 순창군 우수성 입증

순창군이 인체에 좋은 알칼리 환원수로 알려진 ‘강천산 음용 온천수’의 구체적인 효능 입증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강천산 음용 온천수 우수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용역은 ‘강천산 음용 온천수’와 다른 먹는 샘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천산 온천수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의료적 응용효능성 평가 등을 통한 전문적 자료확보를 위함이다.
이번 연구는 ▲풍물모양의 음용 유출성 평가 ▲입상실험을 통한 음용 항산화효과 평가 ▲음용 온천수 개발 방안 검토 등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강천산 주변의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3개의 온천공을 개발했다. 성분분석 결과 수온 26.2~39.8도, 일일 적정 양수량 1334t으로 온천공으로서 손색이 없는 온천수로 판명됐다.
특히 1개소의 온천수는 수질과 성분검사 결과 음용수 기준에 맞는 우수한 알칼리 환원수로 밝혀졌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새만금 신항 국내 첫 인공섬식 개발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 터키방식 확정

오는 2021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을 고시한 이후 지난 17일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터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
터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선진 입찰방식으로 기능·효용성 면에서 창의적이고 기 능편리성, 외관을 아름답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구의 복합 명품

도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방조제, 고군산 군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어우러진 개발방안을 수립해 국내 최초의 인공섬식 항만개발에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타 공사로 발주 시 기본·실시설계를 먼저 발주해 용역을 완료하고 다시 공사 발주해야 하며, 설계과정이 길고 2번의 입찰과정 등으로 최소 1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 착공이 불가능한 반면, 터키방식은 단 한 번의 입찰과정과 설계 기간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설계 변경이 없어 계획기간내 외관을 고려

한 명품항만 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의 기초 자료조사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의 설계완료 및 심의·입찰한다. 이후 11월말 또는 12월중 방파제 공사에 착공해 2014년까지 완공하고 2015년부터 1단계 4선석에 대한 부두건설을 추진해 2020년까지 완공, 오는 2021년 개항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 따라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명품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군산 ‘철새도래지 쌀’ 최우수 영예

전북쌀 대표브랜드 최다 5개 선정

전북 쌀이 브랜드 평가에서 ‘단일 지역 최다선정’으로 전국 최고 품질을 입증했다.
전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2010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를 통해 선정된 12개 브랜드 중 전북지역 쌀이 5개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를 차지한 ‘철새도래지 쌀(군산)’은 6년 연속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상상에찬 골드(김제) ▲큰들의 꿈(군산) ▲순수미 골드라이스(익산) ▲옥도진미골드(군산) 등도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3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가 시작한 이래 단일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주축이 돼 시·도 등에서 추천한 4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품종 혼합률 ▲밥맛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시상식은 21일 서울 농수산유통(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 백제문화 알리기

여행사 초청 마케팅

익산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와 공동 협력해 문화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17일~19일 2박3일간 일본 주요 여행사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메이저급 관광여행사인 한큐여행사, 한·일 합작여행사 롯데제이티비, 블루스카이, 소라여행사와 같은 일본 우수여행사의 상품기획단과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한국 의료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단은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비롯한 백제 무왕과 관련된 유적지를 둘러보고 백제역사 문화교류의 생생한 현장인 금강에서 배를 타며 익산의 백제역사를 체험했다.
TPO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제의 7세기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익산만의 백제문화와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익산의 농촌 체험과 문화예술공연이 정기적 행사가 되면 체류형 관광상품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익산시는 앞으로 문화관광 자료기반 구축과 관광홍보활동을 통해 알차고 재미난 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관광객유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백목련→구절초 비둘기→원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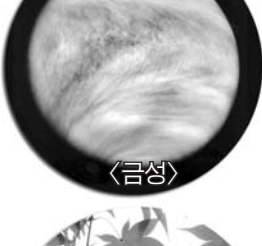
정읍 상징물 내년부터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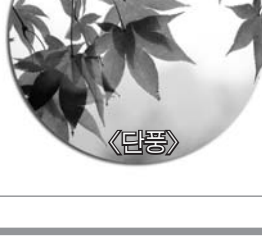
〈구절초〉



〈원앙〉



〈금성〉



〈단풍〉

정읍시 상징물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정읍시는 시목(市木)인 단풍나무는 기존대로 사용하고 시화(市花)는 백목련에서 구절초로, 시조(市鳥)는 비둘기에서 원앙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첨단과학 및 전문우주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시성(市聲)에는 ‘금성’을 지정했다.
변경되는 시화인 구절초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읍시민의 밝고 고상한 기상을, ‘원앙’은 늘 함께하는 부부간의 금실 좋은 사랑을 의미하며 정읍시민 가정들의 화목을 상징한다.
시성으로 지정된 ‘금성’은 ‘셋발’로 불리며 정읍지역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과 희망을 상징하고, 천문 및 첨단 과학 도시를 지향하는 정읍시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시는 상징물 변경을 위해 지난해 10~11월 시민 및 정책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시 상징물을 지정·사용해온지 15년 만에 변경했다”며 “앞으로 정읍시정 광장에서 시 상징물공원을 조성해 시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Advertisement for a new building project. Title: '신축중인 건물매각' (Newly constructed building for sale). It includes a list of building details (층별 면적, 용도) and a table of floor areas. Contact information and location details are also provided.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Title: '부동산의 모든것!! 이제 복돼지부동산에서 함께 하세요' (Everything about real estate!! Now together at Bokdwaebi Real Estate). It features a large 'A급상가' (Grade A Commercial Building) and lists services like '투/자/상/담' (Investment/Lease/Sale/Management) and '운암동 호프' (Ungam-dong Hof).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364-8887) are provided.